

신안군, 고물가 속 버스요금 16년째 동결 '주목'

2008년부터 일반 1000원 유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시행

신안군이 최근 고물가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에도 16년째 버스요금을 동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버스완전공영제 시행 이후 65세 이상·학생 등 이용객 80%가 무상교통 혜택을 누리고 있어 어려운 서민들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신안군은 지난 2007년 버스완전공영

제를 도입한데 이어 2008년부터 일반 1000원 버스요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안군은 최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기류에도 올 해에도 버스요금은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의 버스 이용객은 1년 평균 67만 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과 학생 등 80%는 무상 혜택을 받고 있다.

신안군은 38년이 넘는 도서지역의 해

목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버스완전공영제를 도입했다.

버스요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달 버스 도착예정시간, 실시간 버스 위치 등을 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해 시행에 들어갔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은 신안~목포 간

3개 광역 노선(1004번·2004번·3004번)에 버스정보안내기 58대, 차량 내 통합단말기 42대를 설치해 운영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소비자 물가는 물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전방위적인 상승으로 서민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시기"라며 "주민들이 편리하고 부담 없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요금 동결, 무상교통 지원 등 해상 및 육상교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취미교실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무안군 문화의 집, 27일까지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7일까지 승달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취미교실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 뒤 3월7일부터 총 6개 강좌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로그램에는 대표강사인 건강요가와 재봉틀 흡패션, 원예활동과 치유농업, 홈카페 디저트, 야생화 자수, 패브릭안으로 소품 만들기 등 관내 주민들의 건강, 여가선용, 취미생활을 위한 강좌가 있으며 과목당 20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는 '홈카페 디저트', '재봉틀 흡패션'을 신규로 개설해 남·여·노년층 주민들까지 체험할 수 있는 현장 학습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말에는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해 취미생활에 따른 보람까지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취미교실 프로그램 접수를 희망하는 주민은 무안군청 또는 승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강좌별 세부일정을 확인한 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화의 집(061-450-4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김영민 기자

청자축제 특별행사 참가자 모집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3일부터 3월1일 열리는 강진청자축제의 특별한 행사로 '청자타고 강진으로 토킨 딸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진 특산품인 딸기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메뉴와 청자식기, 청자소품이 어우러지는 강진산 딸기 파티 행사다.

강진 딸기를 활용한 샐러드와 스프를 시작으로 메인 메뉴인 딸기 리소토와 딸기 피자, 디저트와 딸기음료를 제공한다.

아이디어 회의부터 메뉴 결정까지 지역주민과 셰프가 참여해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마련됐다. 청자식기 및 청자소품을 활용한 플레이팅을 선보인다.

딸기 파티는 선착순 마감되며 오는 21일까지 강진 청자 축제 홈페이지(<https://gangjin1.clickn.c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생 모집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예비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2023년도 농협청년 농부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대상자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농업분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9기 교육생은 3월17일까지, 10기 교육생은 5월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며, 2월말(9기), 3월말(10기)까지 조기에 지원할 경우 1차 서류심사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농협창업농지원센터 홈페이지(www.nhparan.com)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nhparan2023@gmail.com)로 접수하면 되고 농협창업농지원센터 교육팀(031-659-3621·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용 기자

콩 안정 생산 재배기술 교육 함평군, 자립형 단지 조성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콩 자립형 단지조성을 위한 콩 재배 교육을 실시했다.

함평군은 콩 안정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교육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산부터 저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콩 재배 과정 전반에 걸쳐 다뤄졌다.

축산공영농조합법인 한은성 대표가 강축산공 단지현황, 시기별 콩 재배 핵심기술, 병해충 관리 등을 강의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을 위한 콩 재배 농가 육성과 기술 지원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무안 해제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활동

무안군 해제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생활불편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 대상가구는 장애인 1가구와 독거노인 1가구로 이장, 복지기동대원, 담당공무원이 주거환경을 살펴 본 뒤 대상자로 선정됐다.

무안군 제공

목포시내버스 이한철 대표 "14일부터 정상 운행"

"시·시의회와 협조하겠다"

목포시내버스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는 13일 "14일부터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해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목포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그동안 대중교통 운영을 중단해 이용객들에게 교통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목포시내버스는 지난해부터 노사임금

협상 결과와 가스비 체납 등으로 운행중단을 반복했다.

임금협상 결렬로 지난해 10월18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29일간 운행이 멈춰선데 이어 12월12일 또다시 운행이 중단됐다. 시내버스 연료인 가스비 체납으로 목포도시가스 회사 측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한데 따른 것.

시내버스 회사 측에서 체납한 가스비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면서 가스공급이 재개돼 목포시내버스는 14일부

터 운행이 정상화 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2일 운행중단 이후 65일만이다.

이 대표는 "행정당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억~40억원의 적자를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시와 시의회와 협조하고 머리를 맞대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운행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정기찬 기자

완도군, 97억 투입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사업 참여 인원 총 2535명

완도군은 올해 97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4억원 증액됐으며 사업 참여 인원은 12개 읍면사무소, 완도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완도

군지회 등 34개 사업단의 총 2535명이다. 인원도 지난해보다 326명이 늘었다.

사업 유형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와 같은 봉사활동 성격의 공익 활동형(2068명),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형(312명), 소규모 매장 운영을 통해 수익

을 창출하는 시장형(105명), 업무 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취업 알선형(50명) 등이 있다.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인 점검과 참여자 및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해남군, 3월까지 방치생활쓰레기 집중 수거

해남군이 봄을 앞두고 방치생활쓰레기 일제 정리에 나섰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3월10일까지 각 읍·면 마을단위 야산, 하천변, 임도 및 간척지 주변 등에 불법 투기해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장비 임차와 인건비 등 5853만원을 투입하며 16일까지

사전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군은 민관이 협력해 쓰레기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역점 추진하는 쓰레기 불법 소각 및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민참여 캠페인 '쓰레기 제로! 해남 515!'와 관련해 515개 마을별로 환경 정화 릴레이를 실

시한다.

캠페인 추진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 읍면 주민숙원사업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운영하고 무단 투기 단속반을 운영, 무단 투기자 색출과 과태료 부과 등도 강화해 나간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88개소 감시카메라와 428개소 안내판도 각각 20개소, 50개소를 추가해 확장할 계획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 진도군, 28일까지

진도군은 올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연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공연 관람, 학원 수강, 체육 시설 등 전남도내 가맹점에서 문화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2021년 2월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거주한 19~28세 청년(1995년~2004년 출생자)이며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수당 대상자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진도=백재현 기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신안군, 긴급지원 나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강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의 피해복구를 위해 구호성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구비 1만달러(1300만원)와 군청 임직원들이 조성한 800만원 등 2억1000만원이다.

조성된 구호성금은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돼 피해지역 이재민 구호를 위한 구호물자 조달 및 조기 피해복구 작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지역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해 11호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쌀 등 구호물품을 지원해 피해지역 복구를 돕는 등 선도적으로 지원해왔다.

신안=홍일갑 기자